

십대 여학생의 성 관련 경험과 자기주장*

장순복** · 유명숙*** · 이선경***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성 건강은 수명보다는 건강수명이 중요시되고 있는 오늘날 암, 심장질환, 정신질환, 사고와 함께 남녀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5대 관련요인 중 하나로서 인간의 건강수준을 결정하는 근간이 되고 있다. 특히 십대 여학생이 겪는 성 관련경험은 그들이 누리는 전 생애 동안의 성 건강에 지속적이며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Green & Tones, 2000; Mackey, 2000). 십대 여학생은 성 건강문제에 있어서 매우 취약한 대상인데 그 이유는 그들은 발달 특성상 신체적으로 아동기에서 청년기로 가는 전환기적 과정에서 독립된 개체로서 자신의 주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 있으면서 이차성징의 발현과 함께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으며 막연한 이성애에 대한 호기심으로 올바른 판단 하에 건전한 이성교제와 성 관련 경험을 하기 어렵고 또래 집단의 사회적 압력으로 성 관련 행동이 좌우되기 때문에 아직은 자신을 주장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성교제나 이성교제 이외의 상황에서 성 관련

호기심을 해결하거나 이성간의 관계 속에서 긴장을 해소하기도 하고(윤가현, 1998), 뜻하지 않은 성폭력이나 성매매 상황에서 원치 않는 성 관련경험을 하게 된다. 최근의 십대 여학생들 중에 48.5- 68.9%가 이성교제를 하고(김연희, 1992; 장순복, 2000), 7.5%(이양재 외, 1997)에서 5.2%(박영주, 1998)가 성교 경험이 있다. 성교에 있어서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이는 미혼모 중에 15-19세 군의 분포가 1984년에 24.8%이었으나 1996년에는 48.5%로 나타난 결과를 통하여 설명된다(함영희, 1996; 한인영, 1998). 우리나라 십대 여학생의 임신 경험율은 0.7%로(박영주, 1998)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절대적 수 자체로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학생은 결과적으로 낙태, 생식기 감염, 불임, 자궁 외 임신 등의 신체적인 문제와, 불안, 우울, 죄책감, 자존감 저하, 성 정체감 손상, 성역할 혼돈, 사회적 고립, 학업의 중단, 인간에 대한 불신, 결혼 부적응, 양육의 어려움등의 전생애 지배적인 후유증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최연순 외, 1999; Mackey, 2000)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십대 여학생들에 있어서 우발적인 성교와 임신의 가능성이 있는 이성교제 시의 신체접촉의 양상을 살펴보면 십대 여학생이 이성교제 시 허용하는 신체적 한계로

* 이 논문은 2000년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가정간호연구소 연구원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

1.4%가 성교까지, 19.7%가 키스나 애무까지, 44.7%가 가벼운 뽀뽀까지라고 응답했으나 실제로 그들이 경험하는 성 관련 경험을 살펴보면 키스나 애무가 26.8%, 성교가 7.5%로 그들이 생각하는 신체접촉의 한계보다 성관련 경험을 더 깊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양재 외, 1998). 김태근(1997)의 연구에서도 여학생 400명중에는 42.1%가 키스나 애무를, 8.7%가 성교를 경험했다고 대답하였고, 이선경(2000)의 연구에서 이성교제하는 6,130명의 십대 여학생 중 7.5%가 성교하였다고 대답하였다. 즉 십대 여학생들은 자신이 원하고 기대하는 수준 이상의 성관련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교 상황을 살펴보면 첫 성교 시 38.9%(232명)가 술을 마시거나 본다, 환각제를 사용한 상태였고, 성교경험이 있는 십대 여학생 군의 46.9%가 피임없이 준비없는 성관계를 했으며, 성교하는 이유 역시 대학생의 38.5%, 십대 여학생의 36.8%가 '성관계를 거절할 수 없어' 성교를 했다는 연구들이 이들의 비자발적이었던 상황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함영희, 1996; 장순복 외, 1998; 장순복 외, 2000).

성상담 현장에서 표출되는 많은 십대 여학생들의 사고에는 손잡기, 어깨동무, 가벼운 뽀뽀는 크게 스किन쉽이라 하여 친밀성에 상응하는 보편적인 행위로 생각하고 키스, 가슴 만지기, 성기 만지기, 성교 등은 성행위의 일부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들은 발달기적 특성과 인간 본성의 인간의 자기 탐색적 욕구의 하나로서 성 관련경험을 하고 싶어하기도 하는데 그들 자신이 허용 가능한 혹은 안전한 스किन쉽의 기준에 대하여 궁금해한다. 그들은 손잡기, 어깨동무, 가벼운 뽀뽀, 키스, 가슴 만지기, 성기 만지기, 성교 등의 성 관련 경험 중 어느 수준에서 자의적으로 자기 주장에 의해서 하고 어느 수준에서 거절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혼돈하고 있었다. 사실상 십대 여학생이 성 건강을 유지하려면 자신의 신체에 자율성을 가지고(김계숙, 2000; WHO, 1995) 그들이 성적으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교육이나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어떤 배경의 학생들이 자기 주장 능력이 낮으며, 어떠한 성 관련경험 상황에서 자기 주장 능력이 행사되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연구로는 이양재 외(1998), 박영주(1998), 김미주(1997), 배영희(1999), 장순복, 김소야자, 한인영, 박영주(2000)등이 성행태나 성교육 요구위주로 보고되었고, 이선경(2000)은 이성 교제하는 십대 여학생

의 성접촉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자기 주장을 설명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전체 십대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 문제 방어능력 관련 연구는 부족하다고 본다. 성 문제 방어능력 배양을 위한 기초자료로 첫째, 십대 여학생의 성 관련 경험분포는 어떠한가? 둘째, 십대 여학생의 일반적 배경에 따라 자기 주장정도는 차이가 있는가? 셋째, 십대 여학생의 자기 주장 정도는 성 관련 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라는 연구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성 관련 경험시에 자기 주장 훈련이 되어야 하는 결정적 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고 성 관련경험 욕구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나 상담의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 첫째, 십대 여학생의 성 관련경험 실태를 파악한다.
- 둘째, 십대 여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 주장 정도를 파악한다.
- 셋째, 십대 여학생의 성 관련경험에 따른 자기 주장의 차이를 비교한다.

3. 용어정의

- 1) 십대 여학생: 13 - 19세의 십대 여학생을 총칭하나 본 연구에서는 2000년 10월 현재 전국에서 표본 추출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십대 여학생을 칭한다.
- 2) 성 관련 경험: 십대 여학생들이 13-19세 사이에 겪었던 이성교제, 손잡기, 어깨동무, 가벼운 뽀뽀, 프렌치 키스, 가슴 만지기, 성기 만지기, 성교, 및 피임 경험을 총칭한다.
- 3) 자기 주장: 상대방의 감정과 권리를 존중하면서 자신의 경험관련 느낌, 생각, 감정과 권리를 솔직하고 당당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능력으로서(Fensterheim, 1975) 본 연구에서는 원치 않는 성 접촉 시에 십대 여학생이 이에 대처하는 능력 점수로서 본 연구자가 개발한 3점 척도의 7문항 값으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주장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II. 문헌 고찰

1. 십대 여학생의 성 관련경험

십대 여학생은 이성친구와는 물론 성폭력이나 성매매 상황에서도 성 관련경험을 할 수 있다(김연희, 1992). 구미 여러 나라 중에 미국의 50개 주에 거주하는 십대 여학생에 해당하는 15-19세 미혼여성의 임신율, 인공유산 및 출산율을 조사한 미 보건성(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1993)의 보고에 의하면, 1991년 십대 여성의 임신율은 1,000명 중 116.5명에서 1996년에 98.7명이고, 출산율은 1994년에 12,901명에서 1998년에 9,481명으로 27%가 감소되고, 영국에서는 15-19세 군 여성의 출산율이 1971년에 1,000명당 50명이었으나 1983년에는 27명으로 감소되었고(Jacobson, Wilkinson, & Pill, 1995), Ketting과 Vissor(1994) 역시 네덜란드 십대 여학생의 임신율이 1,000명 중 1970년에는 20명, 1980년에는 10명, 1990년에는 8명으로 감소되었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함영희(1996)의 미혼모 실태와 복지정책을 위한 보고에 의하면 보호시설에 수용된 미혼모 중 십대 여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1984년에는 24.9%였으나 91년에는 24.3%, 93년에는 32.4%, 96년에는 42.5%, 97년에는 47.9%로 갈수록 높아져 미혼모 저 연령화 현상이 나타나며 동반하여 인공 유산율까지 증가되고 있다. 우리와 비슷한 동양권의 일본의 경우에도 여학생의 키스 경험율이 1993년에 비하여 1996년에 19세 이상 군은 오히려 감소하였으나 15-18세 군은 15%씩 증가되고 있다(Katase, 2000) 서구사회에서는 임신율과 출산율등이 증가 일로에 있다가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는 미혼여성의 임신경험률의 증가와 그 연령의 저 연령화가 증가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성교제가 십대들에게 발달과업으로서 보편화된 상황에서 동료그룹의 성교 경험이 있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11,273명의 십대 여학생 군의 44.7%와 미혼모 군의 86.3%가 있다고 답했는데, 실제로 동일한 집단의 4.5%만이 성교했다고 자가보고 되었으므로(장순복 외, 2000) 십대 여학생들이 알고 있는 동료그룹의 성교 분포는 성교 경험자 실제의 분포보다 10배나 더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등 그들은 사실 이상으로 성 관련경험에 대한 막연한 소문이나 추측을 하며 동료간의 모방

심리 속에서 성 관련경험에 대한 막연한 예기기대와 혼란을 겪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성 관련경험으로 유도될 수 있는 요인중의 하나인 포르노그래피에 1,343명의 십대 여학생들 중에 44%가 노출되어있고, 30%는 포르노그래피가 성 접촉을 유도한다고 반응하였다(김태근, 1997; 최수일, 1996; 장순복, 2000). 미혼모의 경우에는 36.8%가 여학생의 경우에는 38.5%가 원치 않는 성접촉 상황에서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 관련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함영희, 1996; 장순복 외, 2000).

십대 여학생의 손잡기, 어깨동무, 가벼운 뽀뽀 등의 가벼운 성 관련경험들은 성 생리적 특성상 성교로 이어져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하여 미혼모가 되게 하고 학업중단 등의 사회적 문제나, 인공유산, 성병 감염의 신체적인 문제, 자존감 저하, 성 역할 혼돈, 성 정체성 혼돈 등의 심리적 문제와 결혼 부적응, 양육기피 문제등 전 생애에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발단이 되고 미혼모의 35%는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40%는 성 관련 문제를 적절히 대응할 줄 모른다(함영희, 1996; 최연순 외, 1999; Mackey, 2000). 그러므로 십대 여학생들은 자신이 경험할 수 있는 성 접촉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곽영숙(2000)은 성역할 고정관념을 넘어서도록 도와야 한다고 제안하였는데 백성숙(1997)은 우리나라 성교육 자료를 분석한 후에 성 교육자와 부모들의 개방적 태도 전환이 요구된다고 하면서 새로운 성교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요구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안으로서 김영혜(2000)는 십대 여학생의 성교육을 위하여 시청각 프로그램을 사용한 결과 성역할 정체감은 남녀 모두 양성성으로 변화되었으나 성 태도는 변화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고, 김종흙(1997)은 체계적으로 성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개별화된 개인 능력 위주의 성교육이 필요함을 역설하는 등의 방향 제안을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능력교육에 대한 방안제시는 없었다.

2) 자기 주장

자기 주장이란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쾌하게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하여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 견해 등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능력으로서 자기 주도적인 개념이다(Galassi, 1977). Alberti와 Emmons(1978)는 주장행동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가치를 높이며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여 자신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십대 여학생들은 유교문화권의 가부장적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억압되어 자기 주장을 못하였고(홍경자, 1996), 개방된 자유분방한 동료 영향 속에서는 자기 주장이 자신의 감정위주로 해석되고 있으며(장순복 외, 2000), 가족 내 아버지 역할 부재로 인하여 이성친구나 남성의 대체대상인 아버지와의 상호 교류의 부족으로 남성과 타협이나 토의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훈련이 되지 못했음을 1984년의 미혼모의 58.7%보다 1996년에는 65.2%로 아버지가 없는 여학생의 분포가 커지고 있는 자료로부터 설명된다. 그리하여 일정한 유형이 없이 남성 중심적이거나 감정 중심적 의사결정 문화가(이선경, 2000) 혼재된 분위기에서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고 행동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여성들이 처한 성문화는 남성 우월주의, 남녀에 따른 이중기준의 적용, 상업주의, 성교육의 부족으로 인한 성 문제 대응능력 부족, 가부장적 위계구조, 성적으로 무지한 상황에서 한편은 성해방의 기류 속에서 자율성이 없는 무제한의 성적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대중매체의 지배하에 있다. 십대 여학생들은 이러한 성문화의 속에서 그들의 사춘기를 보내고 있다(조영미, 1999; 장순복, 2000). 구체적으로 한국인들은 아직도 67%정도가 성 차별적 남아선호 사상을 갖고 있어 3,134명의 십대 여학생 중에 39%는 남성이었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있고, 아들에게는 성적으로 허용적이며, 딸에게는 통제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중구조를 갖고 있다(이양재 외, 1998).

김성애(2000)는 고등학교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하여 효과검정 연구를 한 결과 생리적 영역, 심리적 영역, 사회적 영역, 가치관 영역으로 분류하여 접근하였으나 행동적 영역은 제외되었으므로 참여자들은 성교육의 결과 자기 효능감이 증가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인지적인 수준의 교육에 치우치므로 교육 후에 점점 더 불안해한다고 반응하여 그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획득되지 못함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 성교육교과서를 분석한 김미주(1997)의 보고에 의하면 교재 내용 중에 대인기법, 성행동, 성 건강 등의 주제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성 접촉의 상황별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내용은 없었다. 한편 학교의 교사들은 적절한 성교육을 할 수 있는 경험이나 기술이 없고(배영희, 1999) 부모들은 성교육이나 자기 주장을 합리적으로 하도록 훈련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김선옥(1998)은 성 문제예방을 위하여 "NO"라고 말할 수 있도

록 지도해야 할 필요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일탈자를 위한 접근이며 또한 상황별 대응능력을 고취시키는 수준이 아니고 지침을 제시하는 수준이었다.

이상의 자료를 통하여 그들의 의식수준은 보호적이거나 행동수준은 의식수준에 비하여 무방비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성간의 신체적 접촉이 성 관계로 유도되는 감정적 반응과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성 관계 경험자들 중 70.2%가 두 번 이상으로 성 관계를 했는데도 20.4%만이 피임했고 피임 시 35.4%만이 십대 여학생 스스로 피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성 관계 경험자들의 70%는 임신 될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고 자기방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십대 여학생이 이성과의 관계에서 성 관련경험에 뒤따르는 성교, 임신, 인공유산, 성병감염 등을 예측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자기 몸의 주인 의식을 얼마나 발휘하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고찰되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한국 십대 여학생의 성 관련 경험과 자기 주장 정도를 규명하는 조사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한국의 십대 여학생의 표적 모집단은 4,684개 학교 중 고등학교의 십대 여학생(13-19세) 1,988,902명이다. 근접 모집단은 전국 중고등학교로부터 다단계 집락 표집법으로 표출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2 학년을 대상으로 한 19,000명의 십대 여학생으로 하였다. 중 1, 2를 제외시킨 이유는 사춘기적 특성의 동질성을 위함이었다. 연구대상은 근접 모집단 19,000명중 질문에 응답한 13,100명중에서 유용한 자료를 보내온 12,733명이었다(68.9%). 연구대상 표집은 지역, 계열, 남녀공학, 3단계 층화 할당법으로 추출하여 254개 학교에 다니는 해당 학년의 십대 여학생 1,988,902명중 19,000명이 표본으로 선정되었다. 이 표본을 위한 학교는 전국 2,741개의 중학교 중 63개교와, 1,943개의 고등학교인 남녀공학과 여학교로부터 191개의 고등학교를 선정하여 총 254개가 선정되었다. 층화 표집 방법은 중학교 3학

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같은 비율로 나누고, 도시(서울, 대전, 인천, 대구, 부산, 광주, 울산)와 농촌(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 같은 비율로 나누어 인문과 실업, 학년별, 각 도별 같은 비율을 적용하여, 중학생인 경우 십대 여학생이 한 학년 당 100명이 확보되고, 고등학교인 경우 한 학년 당 십대 여학생의 수가 50명이 확보되는 학교를 선정하였다. 특히 농촌지역의 학교인 경우는 주소지가 읍, 면 단위에 소재한 학교로 선정하고 7대 도시이외의 중, 소도시 단위 소재 학교를 배제하였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자가보고 식으로 구성된 구조화된 질문 195항으로 구성되었는데 일반적 사항 6문항, 이성교제에 관한 45문항, 비행관련 8문항, 성 접촉 관련 7문항, 원치 않는 성 접촉상황에서 자기 주장 관련 7문항, 십대 성 관계 관련 60문항, 피임관련 22문항, 임신관련 8문항, 인공유산관련 22문항 등 195로 이루어졌으며 연구도구의 개발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자기 주장도구 : 연구자가 개발한 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십대 여학생 중에 세 그룹의 초점집단과의 집단 면담을 통하여 도출된 남성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하려할 때 십대 여학생이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행동내용을 근간으로 개발하였다. 가능점수의 범위는 7-21점으로서 점수가 높을 수록 자기 주장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 .603$ 였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00년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우편을 이용한 자가 보고법으로 하였다. 선정된 각 학교의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각 학교 양호교사를 통하여 연구의 취지와 질문지 회수방법, 비밀유지나 자료수집 과정에서 주의할 사항을 알리고 해당 학급에서 자료수집을 하였는데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비조사 결과 확인된 10-15분의 예상소요 시간을 알려주고 무기명으로 하여 비밀보장이 할 것을 약속한 후 회담자만 응답하게 강조하고 자료수집을 주관하는 담당교사가 설문에 응답한 내용을 보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WINDOW용 SPSS 10.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자기 주장, 성 관련경험 등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범위 등의 서술적 통계를, 그리고 성 관련경험 여부에 따른 자기 주장의 차이는, t-Test를 이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십대 여학생의 일반적 특성

연구의 대상이 된 십대 여학생 12,733명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 연령은 15.9세이고 범위는 13-20세이었고, 학년은 중3, 고1, 고2가 각각 32.0%, 27.1%, 29.8%이었으며, 학교는 인문계가 중학교를 포함하여 72.5%, 실업계가 26.0%이었고, 남녀공학이 42.5%, 여학교가 56.4%이었다. 거주지는 6대 대도시 거주가 40.6%, 지방이 59.4%이었고, 거주형태는 94.3%는 가족과 거주, 5.7%는 가족 외 거주이었으며, 왕따 경험은 십대 여학생 군의 13.3%가 있다고 답했다. 비행 경험유무에 있어서 십대 여학생 군의 62.0%가 음주 경험, 29.7%가 포르노시청 경험, 0.4%가 본드흡입 경험, 0.3%가 성병감염 경험, 3.1%가 사이버 섹스 경험, 19.0%가 흡연 경험, 2.3%가 폰섹스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2. 십대 여학생의 성 관련경험 분포

십대 여학생의 성 관련경험 중에 이성교제 경험은 응답자 12,650명 중 이성교제 경험은 48.5%(6,130명), 손잡기까지 경험한 군은 7.4%(828명), 어깨동무까지 경험한 군은 14.3%(1,597명), 가벼운 뽀뽀까지 7.2%(809명), 프렌치 키스까지 16.3%(1,819명), 가슴 만지기까지 3.6%(404명), 성기 만지기까지 0.7%(76명), 성교경험까지는 4.8%(531명), 성교 경험자 중에서 피임 경험이 있는 자는 67%정도 되었다. 성교 경험한 531명 중 임신경험자는 8.2%로 나타났다. 따라서 십대 여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성관련 경험으로는 프렌치 키스로 나타났다.

〈표 1〉 십대 여학생의 성 관련경험 분포

N = 12,650명	
분 류	명(%)
이성교제 경험자	6,130(48.5%)
손잡기까지	828(7.4%)
어깨동무까지	1597(14.3%)
가벼운 뽀뽀까지	809(7.2%)
프렌치 키스까지	1819(16.3%)
가슴 만지기까지	404(3.6%)
성기 만지기까지	76(0.7%)
성교 경험	531(4.8%)
성교 경험자(n=531) 중 피임 경험	198(67.1%)
성교 경험자(n=531) 중 임신 경험	46(8.2%)

3. 십대 여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 주장 정도

십대 여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 주장 정도의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계열, 주거상태, 주거 지역, 주야간, 왕따, 술, 흡연, 포르노, 가스흡인, 가출, 사이버섹스, 폰섹스 경험 등 각각의 여부에 따른 자기 주장 점수차이를 분석하였다.

성 관련 경험시 원치 않는 성접촉이 있을 때 십대 여 학생의 자기 주장 정도를 항목별로 분석해 보면 '남자친 구의 요구에 응해준다'가 42.7%, '싫으면 끝까지 못하게 할 수 있다'가 39.8%로 나타났다. 이 도구의 가능한 자기 주장 점수의 합은 7-21점인데 실제로 최저점 7점 최고점 21점이 나왔고, 평균은 17.99±2.53 점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 관련경험 시 자기 주장 정도는 〈표 2〉와 같다.

일반적 특성 중에 실업계 학생군이 인문계 학생군보다 (t = 6.201, P = .000), 가족 외 거주군이 가족과 거주 군 보다(t=2.034, P = .042), 농어촌 학생군이 도시 학생군 군보다(t = 3.701, P = .000), 야간 학생군이 주간 학생군 보다(t=3.802, P = .000), 왕따 경험 있는 군이 왕따 경험 없는 군보다(t=3.338, P = .001), 음주 경험 군이 음주경험 없는 군보다(t = 2.119, P = .001), 흡연 경험군이 흡연경험 없는 군보다(t=8.372, P = .000), 포르노 시청 경험군이 포르노 경험 없는 군보다((t = 6.362, P = .000), 본드흡입 경험군이 본드흡입 경험 없 는 군보다(t = 2.318, P = .020), 가출 경험군이 가출

〈표 2〉 십대 여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 주장 차이

분 류	항 목	인 수	평균 ±표준편차	t.	p.
계열	인문계	2,212	18.23± 2.48	6.201	.000
	실업계	1,950	17.74± 2.59		
학년	중학생	1,299	17.98± 2.52	-1.51	.880
	고등학생	4,199	17.99± 2.53		
거주형태	가족과 거주	5,169	18.02± 2.53	2.034	.042
	가족외 거주	330	17.72± 2.62		
거주지역	도시	2,563	18.17± 2.49	3.701	.000
	농어촌	2,568	17.91± 2.55		
주.야간	주간	4,092	18.02± 2.54	3.802	.000
	야간	70	16.86± 2.56		
왕따	아니오	4,524	18.05± 2.52	3.338	.001
	예	865	17.73± 2.61		
술	아니오	1,002	18.15± 2.54	2.119	.034
	예	4,515	17.96± 2.53		
흡연	아니오	3,623	18.19± 2.47	8.372	.000
	예	1,847	17.60± 2.62		
포르노	아니오	3,045	18.19± 2.51	6.362	.000
	예	2,419	17.75± 2.55		
본드흡인	아니오	5,398	18.00± 2.53	2.318	.020
	예	46	17.13± 3.18		
가출	아니오	4,611	18.05± 2.52	3.807	.000
	예	847	17.69± 2.61		
사이버 섹스	아니오	5,178	18.05± 16.86	7.453	.000
	예	262	16.86± 2.75		
폰 섹스	아니오	5,214	18.05± 2.51	8.173	.000
	예	218	16.62± 2.91		

경험 없는 군보다($t = 3.807, P = .000$), 사이버 섹스 경험군이 사이버 섹스 경험 없는 군보다($t = 7.453, P = .000$), 폰섹스 경험군이 폰섹스 경험 없는 군보다($t = 8.173, P = .000$) 유의하게 자기 주장 점수가 낮았다.

4. 십대 여학생의 성 관련 경험에 따른 자기 주장

십대 여학생의 성 관련 경험에 따라 자기 주장 정도의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성교제, 손잡기, 어깨동무, 뽀뽀, 프렌치 키스, 성기나 가슴 만지기, 성교 경험 각각의 여부에 따른 자기 주장 점수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어깨동무를 한 군과 안한 군간에 ($t = -1.511, P = .131$), 가벼운 뽀뽀를 한 군과 안한 군간에 ($t = 1.249, P = .212$)는 각각 자기 주장 점수의 차이가 없었으나, 이성교제 한 군이 안한 군보다($t = 2.379, P = .017$), 손잡기를 한 군이 안한 군보다($t = -2.177, P = .030$), 프렌치 키스를 한 군이 안한 군보다($t = 5.425, P = .000$), 가슴 만지기를 한 군이 안한 군보다($t = 8.637, P = .000$), 성기 만지기를 한 군이 안한 군보다($t = 6.057, P = .000$), 성교경험이 있는 군이 없는 군에 비하여($t = 11.517, P = .000$), 피임경험이 없는 군이 있는 군에 비하여($t = -1.808, p = .017$), 각각 자기 주장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가벼운 뽀뽀나 어깨동무 경험 여부에 따라서는 자기 주장 점수의 차이가 없었고 이성교제, 손

잡기, 프렌치 키스, 가슴 만지기, 성기 만지기, 성교 경험군이 이들 경험이 없는 군에 비하여 자기 주장 점수가 유의하게 낮았고 피임 안한 군이 피임한 군보다 자기 주장 점수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요약된다.

V. 논 의

1) 성관련 경험과 자기 주장

본 연구의 결과 12,733명의 십대 여학생의 일반적 배경의 특성에 따른 자기 주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중학교와 고등학교간에는 차이가 없었고, 실업계가 인문계보다, 지방거주자가 도시거주자보다, 야간학생이 주간학생보다, 가족의 거주군이 가족과 거주군보다, 왕따 경험군이 아닌 군보다, 포르노 시청군이 아닌 군보다, 가출경험군이 아닌 군보다, 사이버섹스 경험군이 아닌 군보다, 폰섹스 경험군이 아닌 군보다, 본드흡입 경험군이 아닌 군보다 유의하게 자기 주장 정도가 낮았다. 이는 Abma, Driscoll, & Moore(1998)등이 가족과 거주 안하는 군, 비행 행동하는 군,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는 군은 성관련 경험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한 자료나 Seamark, & Gray(1997)가 미혼임신군의 61%가 흡연하고 있었다는 보고 등과 유사하다. 사춘기의 여학생은 발달 특성이 불안정하고 동료영향에 의하여 행동이 결정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에 이상에서 규명된 비행들은 스스로의 판단과 자기결정에 의해서 하는 행동이라기 보다는 타의

〈표 3〉 십대 여학생의 성 관련 경험에 따른 자기 주장의 차이

분 류	항 목	인 수	평균±표준편차	t	p.
손잡기	아니오	6,280	18.18±2.60	-2.177	0.030
	네	4,800	18.52±2.49		
어깨동무	아니오	1,108	18.33±2.56	-1.511	0.131
	네	1,106	18.48±2.29		
뽀뽀	아니오	2,214	18.41±2.43	1.249	0.212
	네	646	18.27±2.34		
프렌치키스	아니오	2,860	18.38±2.41	5.425	.000
	네	1,612	17.97±2.41		
가슴만지기	아니오	4,472	18.23±2.42	7.985	.000
	네	370	17.09±2.65		
성기만지기	아니오	4,842	18.14±2.46	6.057	.000
	네	68	16.32±2.54		
성교	아니오	4,910	18.11±2.46	10.162	.000
	네	464	16.71±2.87		
피임	아니오	295	16.49±2.92	-1.808	0.017
	네	198	16.96±7.0		
이성교제	아니오	957	18.18±2.48	2.379	0.017
	네	4557	17.96±2.55		

에 의해서 좌우되며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임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비행성향이 높은 대상을 위하여 자기 주장 훈련이 우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이 발견되었다고 본다.

또한 성 관련경험 중 어깨동무나 뽀뽀 경험 여부에 따른 자기 주장정도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이성교제, 손잡기, 프렌치 키스, 가슴 만지기, 성교와 피임을 안한 군이 피임을 하지 않은 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자기 주장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왜 모든 성 관련경험을 한 군이 성 관련경험을 하지 않은 군보다 자기 주장 정도가 낮은 것이 아니고 행위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가? 본 자료가 전국의 표본으로부터 다단계 집락 표집된 점을 고려할 때에 대상자 편중의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성교제, 손잡기, 프렌치 키스, 가슴 만지기, 성교를 경험한 군이 경험하지 않은 군보다 자기 주장 점수가 낮고 어깨동무나 뽀뽀 경험군이나 경험하지 않은 군 사이에는 자기 주장점수의 차이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러한 결과로부터 십대 여학생의 성관련 경험을 이성교제로부터 시작하여 손잡기, 어깨동무, 뽀뽀, 프렌치 키스, 가슴 만지기, 성기만지기, 및 성교를 성접촉의 강도별 순위로 설명하는데 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십대 여학생들은 이성교제와 함께 손잡는 행위는 상당한 자기결정에 의해서 하게되고 이 단계가 지나면 어깨동무나 뽀뽀는 여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마도 친밀성의 표시로 해석하는 것 같고, 프렌치 키스, 가슴 만지기, 성기 만지기, 성교등은 생리적으로 성 반응을 유도할 수도 있지만 심리적으로도 상당한 정서적 개입등을 동시에 느끼게되므로 이미 이전의 어깨동무나 뽀뽀의 단계에서는 자유의지로 하다가 프렌치 키스, 가슴만지기, 성기만지기, 성교 단계에서는 자신의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하지 않은 채 이전의 신체접촉 경험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하게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Abma, Driscoll, & Moore (1998)는 첫 성교 연령이 10,847 명중에 13세 이하군의 24%인데 비하여 19세 이상은 10%라고 하면서 어릴수록 지식부족과 함께 자기 주장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한편 성 건강을 도모하려면 성관련 경험을 예방 할 수 있어야 하는 사회의 성교육이나 상담의 관점에서 성관련 경험과 자기 주장의 관계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적인 영역에서의 성의 담론화는 대중매체에서 구성애의 성교육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공교

육 현장에서는 1997년에 "성과 행복"이라는 제목의 중학교용 교과서와 1998년에 동일한 제목의 고등학생을 위한 성교육교재가 개발되어 교육과정 속에 통합되어 가르치고 있다. 법적으로는 1999년에 "성차별 금지법"이 제정 발효되고 있는 등 일련의 성교육과 제도적 차원의 노력이 구체화되고 있다. 그러나 김미주(1997)가 국내 성교육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나 배영희(1999)가 고등학생들의 성교육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십대 여학생들에게 자기 주장과 성관련 경험의 관계를 규정짓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노안영(1997)은 고등학생을 위하여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성숙을 위한 성교육 방향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대한 자각을 통해 책임감을 가르치는데 상대방을 배려함이 중요하다고 결론지었는데 이는 남학생 위주의 포괄적인 제안이었고 여학생 중심의 내용은 아니었다.

1940년대부터 시작된 세계에서 가장 오랜 성교육의 전통을 갖고 있는 스웨덴에서도 2000년 이전까지는 성교육이 해부 구조적이고 생리적인 관점에서만 다루어 왔다고, 지식 교육자, 정책가, 건강관리자 등이 성교육이나 성상담시에 통용될 수 있는 합의된 규범이나 가치기준을 갖고 있지 못한 채 생리적 관점과 윤리적 관점의 중간노선을 어정쩡하게 취하고 있다. 생리적 수준의 임신, 출산, 피임, 성병의 문제를 신체적인 문제로만 다루고 윤리적 관점에서는 성인과 부모시기에 양육의 측면에서 책임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스웨덴의 국가적 교육목표는 인간관계에서 보는 성교육이 개인의 자유와 남녀 성별 차이 없는 동등한 권리실현에 두고 있다(Nilsson & Sandstron, 2001).

미국의 Alalama, Birmingham에서는 사춘기여성 성문제예방을 위하여 My Individual Responsibility Reduces Our Risk(MIRROR)이라는 운동을 시작하고 있다(Stardevant, Kohler, Williann, & Johnson, 1998). 이는 성 문제 예방을 위하여 인간의 성욕구의 가치와 선택을 주제로 성인과 함께 토론하며 강의, 역할극, 비디오, 행동기술, 피임 교육을 한 결과 안한 경우보다 조기성교의 위험을 인식하였다. 한편 미국에서는 '금욕과 피임'을 권한 결과 임신과 출산은 감소시킬 수 있었다 보스턴에서 17개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한 결과 결론을 내렸다. (Pierre & Cox, 1997) Brindis(1999)는 스웨덴에서 연간 50만의 청소년 출산이 있지만 1991년보다 1997년대는 15-19세 출산이 16%감소되었지만, 아직도 무방비적 성교에 관한, 개인에 맞는 교육방법과

함께 의사소통, 타협, 거절기술이 훈련되어야 하는 것이 미래 예측적 준비 방법이라고 제시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십대 여학생의 성건강 도모를 위한 성문제 예방 전략으로는 비행대상자이면서 가족 외 거주, 실업계, 농어촌, 야간학생인 경우 우선적으로 자기 주장 훈련의 대상이 되고, 뽀뽀나 어깨동무를 자발적으로 하였다하더라도 쉽게 그 다음 접촉요구인 프렌치 키스, 가슴 만지기, 성교 등으로 발전될 수 있으므로 뽀뽀나 어깨동무를 경험한 군을 우선적으로 자기 주장 훈련의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자기주장 훈련이 성교육이나 성상담시에 포괄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VI. 결론 및 제언

전국의 십대 여학생을 4,684개 중 고등학교의 1,988,902명으로부터 지역, 계열, 남녀공학, 3단계 층화 할당법으로 추출하여 254개 학교의 19,000명에게 자가 보고법으로 우편을 이용한 자료수집을 하여 응답된 자료에서 유용한 자료 12,733명을 대상으로 195항의 일반적 사항 6문항, 이성교제에 관한 45문항, 비행관련 8문항, 성 접촉 관련 7문항, 원치 않는 성 접촉상황에서 자기 주장 관련 7문항, 십대 성 관계 관련 60문항, 피임 관련 22문항, 임신관련 8문항, 인공유산관련 22문항 등으로 이루어진 도구로 측정하였고,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 .6031$ 였다. 성 관련경험은 십대 여학생의 이성과의 상호작용관련 경험을 의미하며, 이성교제, 손잡기, 어깨동무, 가벼운 뽀뽀, 프렌치 키스, 가슴 만지기, 성기 만지기, 성교, 및 피임 등을 측정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0년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였고, 자료수집 방법은 우편을 이용한 자가 보고법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WINDOW용 SPSS 10.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자기 주장, 성 관련 경험 등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범위 등의 서술적 통계를, 그리고 성 관련경험 여부에 따른 자기 주장의 차이는 t-Test를 이용하였다.

1. 십대 여학생의 일반적 특성

십대 여학생 12,733명의 일반적인 특성관련 분포는 표-1에 서술된바와 같이 연령은 13-20세이었고, 학년은 중3, 고1, 고2가 각각 32.0%, 27.1%, 29.8%이었으며, 학교는 인문계가 중학교를 포함하여 72.5%, 실업계

가 26.0%이었고, 남녀공학이 42.5%, 여학교가 56.4%이었다. 거주지는 6대 대도시 거주가 40.6%, 지방이 59.4%이었고, 거주형태는 94.3%는 가족과 거주, 5.7%는 가족 외 거주이었으며, 왕따 경험은 십대 여학생 군의 13.3%가 있다고 답했다. 비행 경험유무에 있어서 십대 여학생 군의 62.0%가 음주 경험이, 29.7%가 포르노시청 경험이, 0.4%가 본드흡입 경험이, 0.3%가 성병감염 경험이, 3.1%가 사이버 섹스 경험이, 19.0%가 흡연 경험이, 2.3%가 폰섹스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2. 십대 여학생의 성 관련경험 분포

십대 여학생의 성 관련경험 중에 이성교제 경험은 응답자 12,650명 중 이성교제 경험은 48.5%(6,130명), 손잡기까지 경험한 군은 7.4%(828명), 어깨동무까지 경험한 군은 14.3%(1,597명), 가벼운 뽀뽀까지 7.2%(809명), 프렌치 키스까지 16.3%(1,819명), 가슴 만지기까지 3.6%(404명), 성기 만지기까지 0.7%(76명), 성교경험까지는 4.8%(531명), 성교 경험자 중에서 피임 경험이 있는 자는 67%정도 되었다. 따라서 십대 여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성관련 경험으로는 프렌치 키스로 나타났다.

임신경험은 성교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563명중에 8.2%(46명)이었다.

3. 십대 여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 주장

십대 여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 주장 정도는 십대 여학생의 42.7%는 '남자친구의 요구에 응해준다'고 답했고, 39.8%는 '싫으면 끝까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답했는데 자기 주장 정도는 가능 점수의 범위 7-21점 중에서 실제점수도 7-21점이고 평균은 17.99 ± 2.53 점이었다. 일반적 특성 중에 실업계 학생군이 인문계 학생군보다($t = 6.201, P = .000$), 가족외 거주군이 가족과 거주군 보다($t = 2.034, P = .042$), 농어촌 학생군이 도시 학생군보다($t = 3.701, P = .000$), 야간 학생군이 주간 학생군 보다($t = 3.802, P = .000$), 왕따경험 있는 군이 왕따경험 없는 군보다($t = 3.338, P = .001$), 음주 경험군이 음주경험 없는 군보다($t = 2.119, P = .001$), 흡연경험군이 흡연경험 없는 군보다($t = 8.372, P = .000$), 포르노 시청 경험군이 포르노 경험 없는 군보다($t = 6.362, P = .000$), 본드흡입경험군이 본드흡입 경험 없

는 군보다($t = 2.318, P = .020$), 가솔 경험군이 가솔 경험 없는 군보다($t = 3.807, P = .000$), 사이버 섹스 경험군이 사이버 섹스 경험 없는 군보다($t = 7.453, P = .000$), 폰섹스 경험군이 폰 섹스 경험 없는 군보다($t = 8.173, P = .000$) 유의하게 자기 주장 점수가 낮았다.

4. 십대 여학생의 성 관련 경험에 따른 자기 주장의 차이

십대 여학생의 성 관련 경험에 따른 자기 주장의 차이는 어깨동무를 한군과 안한군간에 ($t = -1.511, P = .131$), 가벼운 뽀뽀를 한 군과 안한 군간에($t = 1.249, P = .212$)는 각각 자기 주장 점수의 차이가 없었으나, 이성교제 한군이 안한 군보다($t = 2.379, P = .017$), 손잡기를 한군이 안한 군보다($t = -2.177, P = .030$), 프렌치 키스를 한군이 안한 군보다($t = 5.425, P = .000$), 가슴 만지기를 한군이 안한 군보다($t = 8.637, P = .000$), 성기 만지기를 한군이 안한 군보다($t = 6.057, P = .000$), 성교경험이 있는군이 없는 군에 비하여($t = 11.517, P = .000$), 피임경험이 없는 군이 있는 군에 비하여($t = -1.808, p = .071$), 각각 자기 주장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따라서 성교가 성 접촉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사건이라고 볼 때 십대 여학생들은 자신의 충동성을 인정하여 이성 교제하는 과정에서 어깨동무나 가벼운 뽀뽀 등의 신체적 접촉에 뒤따르는 성교, 임신, 성병감염의 가능성 등을 예측하고 예방하기 위해 원치 않는 성 접촉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기 주장능력이 특히 자기주장능력이 낮은 특성을 갖은 집단을 위험군을 우선적인 대상으로 훈련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연구의 제한점

1. 자기주장 측정도구의 신뢰도가 0.603이므로 보다 포괄적인 자기 주장 측정도구의 개발이 요구된다.
2. 십대 여학생 자료에서 사실상 가장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칠 수 있는 위험군의 회수율이 저조할 수 있음을 통제하지 못했다.

연구의 제언

1. 자기 주장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청된다.
2. 어깨동무, 가벼운 뽀뽀 경험이 이성관계에서 원치

않는 성관련 경험시에 최초로 경험하게 되는 자기 주장할 수 있는 단계이므로 이 단계로부터의 성경험 예측정도를 규명하는 심층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곽영숙 (2000). 한국 십대 여학생의 성의식. 대한의사협회지, 43(2):119-127.
- 김계숙 (2000). 여성의 성건강 개념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미주 (1997). 초중고등 성교육 교재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6-45.
- 김선옥 (1998). 일탈십대 여학생 성문제 집단 상담프로그램. 일탈십대 여학생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세미나, 55-64.
- 김성애 (2000). 고등학교 성교육프로그램개발연구, 인문계 여자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40-53.
- 김연희 (1992). 여고생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 및 성교육 요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 김영혜 (2000). 한국 십대 여학생의 성교육을 위한 시청각 프로그램이 성역할 정체감 및 성태도에 미치는 효과. 대한간호학회지, 30(6):1556-1567.
- 김종흠 (1997). 체계적인 교재개발을 위한 주제별 접근양상. 십대 여학생 성교육지도자 양성용 교재개발 워크숍. 성문화연구소. 대한가족계획협회, 33-46.
- 김태근 (1997). 청소년의 성의식, 성행동과 비행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34-45.
- 노안영 (1997). 청소년의 심리발달에 따른 고등학교 성교육 방향. 고등학교 성교육 연구 학술세미나.
- 박영주 (1998). 한국 십대 여학생의 임신, 인공유산 및 출산 경험실태. 대한간호학회, 28(3), 573-582.
- 배영희 (1999). 고등학교성교육교과서 내용분석과 학생 성교육 요구도 조사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간호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43-46.
- 백성숙 (1997). 중학생의 성의식 및 실태에 따른 성교육의 방향. 중학교 성교육 프로그램과 자료개발 방안. 성문화연구소, 23-40.
- 윤가현 (1998). 성문화와 실리. 서울: 학지사.
- 이선경 (2000). 이성교제하는 십대 여학생의 성접촉과

- 자이존중감, 자기 주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양재 외 (1997). 십대 여학생의 성의식 및 성실태 조사연구. 서울: 성문화 연구소.
- 이양재, 김수련, 송은일, 서정애, 오윤경 (1998). 십대 여학생의 성 경험 및 혼전 성 관계 허용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 -전국 실업계, 인문계 여성을 중심으로-. 서울: 성문화 연구소.
- 장순복 (2000). 성장발달에 따른 성건강, 성교육 및 상담 전문교육과정. 여성건강간호학회, 이화여대 헬스관, 2000년 1월 10일. 10-16.
- 장순복, 김소야자, 한인영, 박영주 (2000). 십대 여학생의 임신실태 및 예방대책. 서울: 십대 여학생보호위원회.
- 장순복, 이양재, 박순정, 송은일, 서정애, 서정애, 오윤경 (1998). 대학생의 성행태 조사연구. 한국 성문화 연구소.
- 조영미 (1999). 한국페미니즘 성연구의 현황과 분석. 섹슈얼리티강의. 동녘. 11-43.
- 최수일 (1996). 대중매체가 중학생의 성의식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연순 외 8인 (1999). 여성건강 간호학 I. II. 서울: 수문사.
- 최옥숙 (1992). 십대 여학생의 성의식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지역개발 대학원.
- 한인영 (1998). 미혼모 발생현황 및 미혼모 복지의 방향. 한국 모자보건학회 제 3차 학술대회 연세집.
- 함영희 (1996). 한국 미혼모 복지의 현황. 제 1회 여성복지 세미나 자료집.
- 홍경자 (1996). 청소년 집단 상담. 청소년 대화의 광장. 22-23.
- Abma, J., Driscoll A., Moore K. (1998). Young Women's Degree of Control over First Intercourse: an Exploratory Analysis. Family Planning Perspective, 30(1), 12-18.
- Alberti, R. E., & Emmons, M. L. (1982). Your Perfect right(4th). San Luis Obispo, CA: Impact.
- Brindis, C. (1999). Building for the Future: Adolescent Pregnancy Prevention. Journal of Am Med Womens Assoc, 54(3), 129-132.
- Fensterheim, H., & Baer, J. (1975). Don't say yes when you want to say no. New York: Dell Publishing Co.
- Galassi, M. D., & Galassi, J. P. (1977). Assert Yourself! : How to be your own person. New York: Human Sciences Press.
- Green, J., & Tones, K (2000). Sex and the World. Sexual Health and Foundations for Practice, edited by Willson, H., & McAndrew, Bailliere Tindall, P28-30.
- Jacobson, L. D., Wilkinson C., Pill R. (1995). Teenage Pregnancy in the United Kingdom in the 1990s: the Implications for Primary Care. Family Practice, 12(2), 232-236.
- Katase, K. (2000). Sexual Attitude and behavior of contemporary Japanese youth. Journal of Asian Sexology. Asian Federation for Sexology. 2:119-120.
- Ketting & Vissor (1994). Contraception in the Netherlands : the low abortion rate explained. Patient Education and Counselling, 23, 161-171.
- Mackey, J. (2000). The Penguin Atlas of Human Sexual Behavior. Penguin References, 30-31.
- Nilsson, A., Sandstron, B. & Skolverker (2001). "The Best Thing is Getting too Konw What others Think..." A summary of a quality assessment of sex education in 80 Swedish Schools.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 Pierre, N., Cox, J. (1997). Teenage pregnancy prevention programs. Current Opinion in Pediatrics, 9(4), 310-316.
- Seamark, C. J., Gray D. J. (1998). Teenagers and Risk-taking: Pregnancy and Smoking. British Journal of General Practice, 48(427), 985-986.
- Sturdevant, M. S., Kohler, C. L., Williamms, L. F., Johnson, J. E. (1998). The University of Alabama Teenage Access Project: A Model for Prevention, Referrals, and Linkages to Testing for High-Risk Young Women.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23(2), 107-114.
- 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1993). Teenage pregnancy and birth rates

United States, 1990. MMWR, 42(38), 733-736.

WHO (1995). Teaching Modules for Basic Education in Human Sexuality. vol.7. 15-43.

- Abstract -

Key concept : Teenage girls, Sexual experience, Self-assertiveness

Self-Assertiveness and Sexual Experiences of Teenage Girls in Korea*

*Chang, Soon Bok** · Yoo, Myung Sook***
Lee, Sun Ky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characteristics related to self assertiveness in teenage girls, an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lf assertiveness and sexual experiences in teenage girls in Korea.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12,733 girls from an accessible population of 19,000 girls who were a multi-stage cluster sample from a population of 1,988,902 girls attending to 4,684 schools in the seven large cities and nine provinces of Korea. The response rate was 68.9%. Data were collected by mail from October 2 to October 28, 2000. A structured questionnaire of 125 items which included measurement of general characteristics, sexual experiences, and self-assertiveness was used. The sexual experiences were defined as dating, holding hands, putting arms on the shoulders, light kissing, French kissing, touching breasts, touching genitalia, and coitus. The self assertiveness measurement was developed by S.

B. Chang et al.(2000) and has a Cronbach's alpha of .6031. Data was analyzed with SPSS 10.0 Program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reliability, and t-t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subjects were from 9th to 11th graders and 42.7% answered that they followed their partner's request. The range for the self assertiveness score was 7-21 out of a possible range of 7-21. The group of girls who were in vocational schools, lived away from family or in rural areas, attended night school, took part in drinking, smoking, and glue inhalation, who had cyber sex or phone sex or were exposed to pornography, and who had run away from home showed significantly lower self assertiveness scores than those without these characteristics ($P < .05$).

2. The group which had experience in dating($t=2.379$, $P=.017$), French kissing ($t=5.425$, $P=.000$), touching breasts ($t=8.637$, $P=.000$), touching genitalia ($t=6.057$, $P=.000$), and coitus($t=6.057$, $P=.000$) showed significantly lower self assertiveness scores than the group which had not had these sexual experiences. But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self assertiveness scores between the group which had experience of holding hands, light kissing, and using contraceptives compared to the group which did not.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group which had delinquent behavior showed lower self assertiveness, and the lower self assertiveness led to unwanted sexual experiences. It is suggested that self assertiveness training be provided for the group with delinquent behavior as a first priority, and then analyze of the process of self assertiveness in relation to sexual experiences.

* This paper was supported by the Commission of Youth Protection.

**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for Home Health Care(csbok@yumc.yonsei.ac.kr)

***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Doctoral Candidate